Ethylene, 410달러로 30달러 급락

FOB Korea 400-420달러 … 크래커 재가동 잇따라 과잉 재연조짐

Ethylene 가격이 5월24일 기준 FOB Korea 톤당 400-420달러로 30달러 급락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PE 및 Vinyl 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주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유도제품 플랜트들이 가동률을 감축하고 있어 당분간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HDPE 가격은 CFR China 톤당 590-6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원료인 나프타 및 원유 가격도 최근 들어서는 강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에틸렌 가격급락에 일조했다. 나프타 가격은 6-7월 거래물량이 C&F Japan 톤당 236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4-5월 정기보수에 들어갔던 한국 및 일본의 에틸렌 크래커들이 일부는 가동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6월 중순까지는 정기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동남아 가격은 동북아에 비해 약간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CFR Taiwan 가격은 430-450달러, CFR SE Asia도 430-450달러를 보이고 있으나, FOB Japan은 390-410달러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말레이지아의 Optimal Petrochemical은 에틸렌 60만톤 크래커를 55% 수준에서 가동하고 있다. Petlin의 PE 플랜트가 아직 정상가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지아에서는 에틸렌이 남아돌아 6월 초순 거래물량 4000톤이 FOB Kerteh 기준 톤당 440달러에 나와 있고, 한국의 호남석유화학은 6월 거래물량 2000톤을 FOB 420달러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FOB Korea/SE Asia 톤당 390-400달러에 구매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서유럽의 에틸렌 Spot 가격은 CIF NWE 기준 톤당 610-630달러로 전주와 같았다.

서유럽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EO(Ethylene Oxide) 및 PE 플랜트 공급물량이 AIG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다만, 이란으로부터 공급받는 에틸렌 Cargo가 늦어지고 있는데, BASF를 비롯해 AtoFina, BP 등이 상업구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란산 에틸렌은 톤당 510유로를 나타내고 있어 유럽가격 FD NWE 600유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에틸렌 계약가격은 1/4분기 기준 473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7>